

# ‘바람 잘 날 없는’ 광주디자인센터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디자인센터의 노조원들이 이례적으로 원장 해임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원장이 부인 전 대표로 있었던 회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디자인센터 안팎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모 디자인회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디자인센터 감사결과 처분 요구 및 재심의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회사는 디자인센터 원장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으며 지난 2016년 4월 취임 전에는 원장이 대표였다.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7월 광

## 원장 부인 회사 광주시 상대 소송 패소 “광주시 감사위 감사결과 처분은 적법”

주디자인센터가 추진한 ‘산업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자로 선정돼 2개 품목 1억213만6750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사업공고에는 기업당 2개 분야 신청이 가능하되, 1기업 1품목에 한해 지원토록 명시했으며 기업당 지원금액을 최대 5600만원으로 제한했다.

광주시 감사위는 디자인센터에 대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잘못 지급된 4600만원을 회수토록 요구했다.

감사위는 디자인센터가 요청한

처분 재심의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했으며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처분이 적법하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디자인센터 원장이 과거 대표로 있던 회사에 부당한 지원금이 지급됐고, 원장 취임 후에는 이를 회수해야 하는 묘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회사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순

해배상청구소송은 현재 1심 계류 중이다.

한편 광주디자인센터 노조는 인사권 남용과 직원탄압 등을 이유로 원장 해임을 요구하며 광주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디자인센터지회는 “원장이 2년여 동안 24차례 직원 진보인사를 한 데 이어 6개월만에 또 다시 인사를 예고했다”며 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디자인센터 노조는 이미 박 원장 해임 건의문을 광주시에 전달했으며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디자인센터 원장 등의 부적절 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서은홍 기자

## ‘순천 봉화산 출렁다리 설치 제동’ 감사원 감사

순천시의 봉화산 출렁다리 설치 추진이 감사원의 공익감사 대상이 되면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7일 순천환경운동연합이 감사원에 청구한 ‘순천시 봉화산 출렁다리 설치공사 위법성과 예산 낭비 감사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 조사과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순천시청을 방문해 예산 낭비 여부 등 감사해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시는 출렁다리 설치비 25억 원, 인근 철쭉동산 등 부대공사 5억 원 등 총 30억 원을 들여 시민 체험과 전망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 계획을 추진했다.

봉화산 들레길의 일부 구간인 조곡동 철도관사와 급호타운 뒤 좌경골 계곡에 길이 184m, 높이 37m, 너비 1.5m 규모로 출렁다리가 완공되면 전율과 모험을 체험하는 명소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었다.

실제 봉화산 들레길은 2016년 산림청에서 주관한 ‘전국 도시숲 이용자 만족도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고, 순천 시민들이 좋아하고 즐겨 찾는 대표 명소라는 점에서 출렁다리가 더해질 경우 다양한 연계 효과가 기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출렁다리 설치가 생태 도시 정책에 역행하는 개발사업인 데다,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폭염 기승, 양계농가는 ‘흡수’ 폭염이 기승을 부린 18일 오후 세종시 소정면의 한 양계농가에서 농장주가 더위를 못 이기고 죽은 닭들을 끌러내고 있다.

## 4대강사업 중 영산강 관여 훈·포장 91명 서훈 취소 목소리

4대강 공사 과정 중 영산강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91명이 훈·포장과 표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4대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위법·부당한 지시로 이뤄진 실패한 사업이고 국고 손실과 환경 파괴를 초래했다”며 공적 재심 의와 서훈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18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4대강 홍보장 인사 1152명 중 91명은 영산강 사업에 참여한 공로로 훈·포장과 표창을 받았다.

서훈자 소속을 살펴보면, 정부기관(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서울·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시·전남도·나주시·농어촌공사·도로공사·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경찰청)이 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 등 기업인 37명, 대학 교수 등 대학교 관계자 5명, 영산강벚길살리기 운동본부 등 단체 관계자 5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훈 종류는 국무총리표창 47명, 대통령 표창 24명, 근정포장 8명, 산업포장 5명, 홍조근정훈장 2명, 녹조근정훈장 1명, 석탑·동탑·은탑·찰탑산업훈장 각 1명으로 집계됐다.

수여 배경(공적사항)으로는 ‘예산 확보·사공 감리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노력한 공적이 있다’ 4대강 사업의 효과를 홍보했다. 환경단체의 반대운동을 저지하고 민원 관리를 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다만, 명품보 건설에 크게 기여했다 ‘영산강 수질 개선·재해 예방에 앞장섰다’는 등 당시 정부의 자의적 판단도 포함된 것으로 환경단체는 분석했다.

실제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4번째 감사’ 결과 영산강은 보 건설 이후 매년 일부 수질 악화와 남조류가 발생, 환경 파괴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은 4대강 사업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도 0.01(100원 투자시 1원 수준)에 불과했으며, 물 부족량의 4% 가량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련 부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환경영향평가 축소 등이 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식 행정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광주·전남 등 25개 지역 환경연합과 함께 4대강 사업 훈·포장 회수 촉구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최혜규 기자

## 이사 선거 금품 혐의 광주축협 후보 18명 입건

광주축협(이하 광주축협) 이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선거 과정에 대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농협법등조합법 위반)로 경찰에 무더기 입건됐다.

18일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축협은 지난 2월2일 이사 9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치렀다.

당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총 18명이었으며, 투표권이 있는 대원은 총 43명이었다.

경찰은 선거 과정에 후보자들이 대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포착, 지난 5개월여 동안 수사를 이어왔다.

수사 결과 후보자 18명 전원이 대의원 41명에게 현금이나 상품권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건네진 현금이나 상품권의 총 액수는 1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후보자 전원을 기소 의견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대의원 4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10~50배)의 검토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의뢰했다.

## 집행유예기간 절도 30대 차털이범 영장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낮시간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화물차를 던 현의(절도)로 박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이면도로에 주차된 A(49·여)씨의 화물차에서 현금 80만원이 든 가방(시가 145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는 박씨는 화물차 운전석 창문 사이로 잠금장치가 오픈되어 있는 것을 보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 5월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차를 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씨가 편의점에서 산 커피를 마신 뒤 플라스틱컵을 범행 장소와 30m 가량 떨어진 지점에 버리고 간 것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역 모 시장 주변에서 박씨를 목격했다’는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검거했다.

## 만취상태 출동 소방관 폭행 60대 검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전남도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17일 출동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6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장흥군 장흥읍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B(36)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몰이 아프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 B씨는 A씨를 구급차량으로 옮기려 했지만 A씨는 욕설 등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소방본부는 A씨가 술을 깨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정환 기자

## 어린이집 차량서 7시간 방치 4살 어린이 사망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4살 어린이가 차 안에 방치돼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아이는 문이 잠긴 뜨거운 차 안에서 무려 7시간이나 홀로 남겨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50분께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차 안 뒷좌석에서 A(4)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다른 원생들과 함께 통원 차량을 타고 어린이집에 왔지만 미처 차에서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 측은 7시간 뒤인 오후 4시가 돼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교사가 ‘아이가 등원하지 않았다’며 부모에게 연락을 했다가 ‘정상 등원했다’는 부모의 말을 듣고서야 뒤늦게 A양이 없어진 걸 안 것이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부랴부랴 차 안에서 A양을 발견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경명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연금사업
- 농지규모화사업



###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농지임대수탁사업**

자력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후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경명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피해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